

2013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

3년간 40억원 지원 … 4월 12일까지 기술창업자 공모
“창업강좌 운영 등으로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

창업지원단(단장 조경호)은 지난 8일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13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일반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일반형 창업선도대학’은 창업팀 교육에서부터 사업화 및 성장지원 등 창업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갖춘 권역별 거점대학을 의미한다. 이번 선정으로 제주대는 국고 12억원, 제주특별자치도 1억원, 대학 5000만원 등 연간 13억5000만원씩 3

년간 40억5000만원을 이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을 보면 △신규 창업 등 창업 사업화 지원 △창업강좌 운영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이러닝 콘텐츠개발을 통한 창업 학제 구축 △지식 재산권 확보 지원, 기술거래장터 등 기술사업화 △창업 마케팅 지원 등이다. 창업지원단 프로그램은 제주대 재학생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대학생,

일반인들에게도 참가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창업지원단 관계자는 “올해에는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제로 사업으로 이어지는 창업사업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단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참신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창업사업화 지원 ‘기술창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기술창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제품제작, 마케팅 지원 등이 이뤄진다. 조경호 단장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창업자금, 입소공간, 전용교육, 전담 코칭 등을 망라하는 사관학교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창업지원단이 기술창업의 요람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지원단은 2014학년도부터 학부 입시에 각종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특기생 전형

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전형에 경영정보학과 1명,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1명을 뽑기로 했다.

김명지 기자



“희망과 행운” 지난 11일 학교 정문에서 허향진 총장을 비롯한 학무위원과 보직교수 및 직원, 총학생회·총대의원회·총여학생회·동아리연합회 등 학생자치기구 임원들이 등교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희망과 행운의 떡 나눔, 학교사랑 배지달기’를 벌였다.

학생자치기구 출범식 잇따라 열려



지난 11일 열린 총대의원회 출범식에서 총대의원회 간부들이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13일 총학생회 출범식

지난 11일 길라잡이 총대의원회의 출범식을 시작으로 14일 동아리연합회 출범식까지 학생자치기구 출범식이 연이어 열린다. **출범 인터뷰 4연** 12일에는 학생회관 일대에서 총여학생회(정·박지혜 부·고수연) 출범식이 진행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학과사무실에 공결문 배치 △자궁경부암 예방 홍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홍보 △생각주기팔찌&위안부 내용 전시 △그외 각종 게임 등이 진행됐다. 오후 6시부터는 고사가 치러

지고 공식적인 출범식 행사가 이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열린 총대의원회(정·양승훈 부·신상우) 출범식 부대행사로 △길라잡이 인사 및 공연 △나도 페이스북처럼 △단체 O.X 퀴즈 △팔찌를 △경품 추첨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 6시부터 학생회관 로비에서는 한 시간 동안 출범식 공식행사가 열렸다. 이날 출범식은 양승훈 총대의원회 의장, 신상우 부의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고사 △감식 중 학생처장 측사 △총대의원회 간부 인사 등이 이어졌다.

취업서포터즈 3명 모집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운)가 제2기 취업서포터즈(JOB ATOZ)를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총 3명으로 신청 희망자는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취업전략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취업서포터즈는 △대학생 구직활동 지원 △취업전략본부 홍보(취업전광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졸업자 및 재학생 대상 홍보 등이 주요업무이다.

학생식당 특식 가격 인상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아라캠퍼스 백두관(학생회관)식당 특식이 종전 3000원에서 500원 인상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석중 학생처장)에 따르면 물가인상 등 재료비 인상으로 지난 11일부터 특식 가격을 3500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주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식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출범한 지난해에 이어 1년만에 인상이 결정됐다. 단 2014년도 식대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메뉴의 식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정식은 2000원, 양식은 2700원으로 가격이 확정됐다.

학생들이 평상시에 부담없이 이용하는 학생식당도 해를 거듭할수록 밥값을 인상함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2011년에는 식재료비와 가스비 상승을 이유로 정식은 종전 1700원에서 1900원, 특식은 2500원에서 2800원, 중식은 17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200~300원 인상된 바 있다. 또한 당시 학생식당 양식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이 올랐으며, 라면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일제히 인상됐었다.

2학기 파견 국제 교류수학생 11개국 121명 모집

오는 15일까지 신청

18학점 범위 학점 인정

국제교류본부(본부장 강영훈)가 2013학년도 2학기 파견 국제 교류수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파견 교류수학생은 11개국 대학 총 121명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대학은 일본은 고베대학, 나가사키대학, 동경학예대학, 오사카 경제대학, 메이지대학 등 8개 대학이다. 중국은 동북대학, 상담

대학, 천진외국어대학, 하얼빈이공대학, 호남사범대학 등 14개 대학이 있다. 미국은 네브라스카대학, 텔라웨어 주립대학 등이 있다. 또 대만에는 국립성공대학, 국립중앙대학 등으로 파견교류수학을 할 수 있다. 그외에도 홍콩, 베트남, 프랑스, 러시아, 몽골, 칠레 대학 등이 있다. 지원자격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단 남은학기가 1학기 이상), 성적평균 평점이 학부생은 2.7 이상, 대학원생은 3.0 이상이다. 그외에도 각 대학별로 요구사항이 있다. 이는 국

제교류본부 선발계획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TOPIK 4급 이상 취득자 이상만 지원 가능하다. 파견 교류수학생 선발은 해당 분야 언어 공인성적순으로 이뤄진다. 신청 기한은 오는 15일이며 21일에 수학생 대상자를 확정한다. 단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기당 18학점, 계절학기 6학점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문의=국제교류본부 (064-754-2198)

서비스 디자인 연구로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

공동연구·정보교류 등 약속

제주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이태용)이 지난 8일 제주 지역의 디자인 발전과 우수한 디자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 △제주의 디자인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제주지역의 디

인 발전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융합형 디자인대학 사업을 통해 다학제적 디자인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교과과정을 개발해 지역 디자인 인재 육성에 기여키로 했다. 특히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려 향후 서비스디자인 연구 등을 활용해 지역 경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산학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진흥을 통해 수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1970년 설립됐다. 이는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예



이르다 2001년부터 지금의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이 개편됐다.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제주대학교로 102
전화 064)754-2275 팩스 064)702-0549 http://press.jejunu.ac.kr

제주대학교 출판부

퇴계시와 미학 退溪詩

이손오규 저 | 441페이지 | 20,000원 |

“돌을 지고 모래를 파서 스스로 집을 삼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니 다리가 많구나 한 평생 한 움큼 산 셈물 속에 머물러 강호의 물이 얼마인가는 묻지도 않는도다”

퇴계는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시인이다.

『퇴계시와 미학』은 퇴계시를 번역하고 높은 예술성에 대해 기술한 책이다. 저자는 퇴계가 가지고 있는 번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재현하려고 노력했다. 학문적 함축성과 철학을 통해 완성된 인간존재, 근원으로서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 대자연의 질서와 조화에 동참하는 감동 등 다양한 퇴계시의 미학을 확인할 수 있다.

실용영문법해설(3) 『실용영문법해설』 시리즈 전3권

이고경환 지음 | 458페이지 | 20,000원 |

“The sun sets regularly on the Union Jack these days, but never on the English language.”
“요즘은 영국 땅에서 어김없이 해가 지지지만, 영어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해가 지는 일이 결코 없다.”

『실용영문법해설』 제3권. 영문법 범주가 갖는 형태, 의미, 기능 등을 상세하게 다루는 실용영문법해설서이다. 영어를 능동적으로 구사하면서 타인의 말이나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충분한 예문을 동원하여 다양한 영문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탐구

이정광중 · 김민호 · 오성배 · 황석규 · 고광명 | 320페이지 | 13,000원 |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세계 사람들이 말춤 열풍에 빠져 들고 있다. 싸이 돌풍을 우리 모두가 예견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기로에서 있음을 예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다문화사회의 이행속도가 시시각각 빨라지고 이미 가속도가 붙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탐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성장·발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교육의 실상을 다룬 연구서이다. 다문화교육 전문가와 제주 지역 연구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내용을 담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탐구

이정광중 · 김민호 · 오성배 · 황석규 · 고광명 | 320페이지 | 13,000원 |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세계 사람들이 말춤 열풍에 빠져 들고 있다. 싸이 돌풍을 우리 모두가 예견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기로에서 있음을 예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다문화사회의 이행속도가 시시각각 빨라지고 이미 가속도가 붙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탐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성장·발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교육의 실상을 다룬 연구서이다. 다문화교육 전문가와 제주 지역 연구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내용을 담았다.

법철학강의

이고봉진 지음 | 291페이지 | 15,000원 |

“살을 떠난 진리는 없다.”

저자는 법철학을 공부하면서 ‘학문의 즐거움’을 향유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법철학의 추상성’에 상심하곤 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 헌법재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헌법재판 특히 위헌법률심판은 법규범이 헌법에 비추어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살피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규범의 정당화’라는 법철학의 주요문제와 맞닿아 있었던 것이다.

『법철학강의』 정법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올바른 법에 대해 탐구하고 모색하는 법철학 강의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한 교재다. 도덕규범과는 달리 강제규범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올바른 법에 대한 근거제시가 아주 중요한 법규범에 대해 배워나간다.

해기사 및 해양경찰을 위한 해상 수색 및 구조론

이최찬문 · 안장영 공저 | 314페이지 | 13,000원 |

선박에서는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나 해양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지리적인 격리성, 해상환경의 특수성 및 작업의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조난자를 수색하고 구조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해상 수색 및 구조론』은 체계적인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업무를 안내한 책이다. 해양경찰을 위한 수협법 및 현장 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IMO 수색 및 구조’를 다루고 있으며 상선 수색 및 구조,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수난구조법을 정리하여 수록했다. 또한 관련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 및 약어 설명이 들어있다.

사 설

학생자치기구 출범을 맞아
대학문화를 생각한다

문화변동의 속도가 무섭다. 소비양식과 소통방식 뿐만 아니라 지식의 구성과정과 유통 방법까지도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과 교수 사이의 문화적 격차, 또는 단절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지식을 전수하고 생산하는, 그리고 그것을 사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구성원들 간에 지식 그 자체에 접근하는 태도와 방식이 다른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사이버 공간은 토론을 위한 공론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등 소위 SNS의 놀라운 발전은 지식을 전제적 맥락이 없는 파편화된 ‘조각들’로 만들어 버린다. 지식은 상점에 전시된 일회용 상품처럼 공급할 때 찾아 소비하고 버리는 대상일 뿐이다.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구조적 전체와 관련시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20년 전, 30년 전 대학생 문화가 더 좋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대학 문화는 지금의 재기발달함과 다양성을 가지지 못했다. 권위주의적인 지배에 맞서는 대학은 저항적이고 비판적이었지만 거울상처럼 ‘권위적’ 이었고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사회를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찾아 학생들 스스로 치열하고 고민하고 공부했었다. 대학의 교과 과정이 결코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래서 더욱 목말랐던 비판적 지식을 찾아 학회를 만들고 세미나를 하고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는 역할을 했다.

이제 그 세대들이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부모들은 스스로가 추구했던 비판적 정신을 자녀들에게 빼앗아 버렸다. 비판과 상상보다는 경쟁과 성공만이 최고의 선이라고 교육했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의 권위주의에 도전하고 저항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소비주의와 시장만능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식 세대들을 ‘지적 불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의 공부는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이고 좋은 대학의 졸업장은 좋은 직장과 높은 수입을 보장하는 도구일 뿐이다.

물론 새로운 세대의 비판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경쟁과 성공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해도 대학은 학문을 논하는 장일 수밖에 없고 학문의 기본은 비판과 상상력이기 때문이다. 대학 문화 안에는 경쟁과 성공, 그리고 이기적 이해타산의 논리로 교수와 부모세대와 ‘거래’ 하기 보다는 이러한 논리 자체를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잠재적 힘이 충만해 있다고 믿는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또는 강요받은 것이 아닌 스스로가 만들어 낸 세대의 정체성과 문화가 출현할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이다.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단과대학과 과학생회의 새로운 출발을 맞아 비판적 지식 담론 생산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는 대학문화가 무한한 잠재적 힘에도 불구하고 상품물신주의에 편승한 소비주의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모든 것을 양적으로 생각하고 상품과 화폐의 논리로 지식의 생산을 평가하는 교육당국과 대학들의 잘못이 더 크겠지만 이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학생들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영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스토리텔링센터, 음악극 ‘광해’ 제작에 참여

제주도·MBC와 공동제작
22일 오후 7시 문예회관에서

제주대 스토리텔링연구센터(센터장 양진건)가 광해군을 소재로 한 ‘광해-빛의 바다로 가다’ 제작에 참여했다.

지난 4일 국제교류회관에서 ‘광해-바다로 가다’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공연의 기획, 제작, 연출 등을 맡은 창작팀과 캐스팅 배우들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는 창작음악극에 대한 제작배경과 제작과정이 발표됐다.

이날 행사에선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의 축사로 시작해 공연의 기획총괄(양진건)과 제작총괄(지건보 제주MBC) 등 창작팀과 배우들(이영호, 박민정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제주유배문화의 녹색 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MBC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창작음악극 ‘광해 - 빛의 바다로 가다’는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이번 작품은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생을 마감한 광해군의 일대기를 그린 것이다. 이 작품은 제주의 색깔을 더해 화제가 됐으며 왕으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광해군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스토리텔링연구센터 관계자는 “광해군을 통해 인간 내면의 갈등과 고뇌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작품을 통해 관객 자신의 내면을 둘러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해, 그리고 유배를 말하



지난 4일 양진건 스토리텔링개발센터장, 제작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교류회관에서 창작음악극 ‘광해-빛의 바다로 가다’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다’라는 주제로 TV콘서트와 함께 열린다. TV콘서트는 광해군에 대해서로 대입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패널들이 출연해 광해군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흥미롭게 풀어낸 토크쇼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개 녹화가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특히 광해군의 이야기를 문화 콘텐츠로 사용하는 시작점이라는 데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하은 기자

한국국제협력단 지원사업 참여대학 선정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개설
우수 수강생 특전 부여

제주대가 지난 9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사업 참여대학으로 선정됐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해 이들 국가의 사회 경제 발전을 지

원하고 있다.

제주대는 이에 따라 교양강좌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교과목을 개설, 운영중이다.

이 교과목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해외의 유상 및 무상 원조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해외 봉사 등이다.

제주대는 올해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받아 우수

수강생들을 선발해 제주대 아라 해외봉사단 해외봉사활동,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본부 견학 참여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개발협력강의개설, 해외 현장 학습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공적원조(ODA) 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품의 선율로 ‘제주의 왕자’를 불러내다



제일제주인센터(센터장 이창익) 주최로 7일 아리뮤즈홀에서 제주출신 양방언 특별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공연에서 양방언씨는 'Prince of jeju' 등의 연주곡을 선보였다. 제주대 음악학과 정주희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선 피아노 연주와 대담을 통해 제일제주인 양방언의 음악과 인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라봉사단 신입회원 모집
14일까지 10명

학생복지과에서 아라 국내봉사단 필링힐링봉사팀 신입회원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제주공생원(제주정신요양원, 시립희망원) 환자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학생 10명을 모집한다.

신청희망자는 학교 홈페이지 제주대소식에 실린 게시물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본관 3층 학생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봉사는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생활과학지도자과정
5기 입학식 열려

자연과학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자연과학대학 부설 과학아카데미 생활과학지도자과정 5기 입학식’ 행사가 지난 7일 열렸다. 이번 입학한 학생은 홍우기씨 등 75명이다.

이 과정은 일반인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는 도내 유일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이다.

김세재 자연과학대학 학장은 “생활 속에서 과학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높이고 생활 속의 과학적인 사고를 소유한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박경숙 교수

언론중재위 위원 선출

박경숙 (언론홍보학과)교수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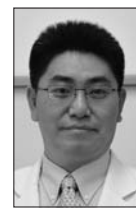
국회의원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됐다.

여교수협의회장 겸 제주대학교 부회장이기도 한 박경숙 교수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린쯔대에서 언론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재천·이종후 교수

우수는문상 수상

이재천 (위)·이종후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교수가 대한내과 학회



서 “경증 천식 치료 중 기도과민성 재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우수는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발표한 논문은 제주대학교병원에 내원한 기관지 천식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이다.

강봉수 교수

대안연구공동체 원장 선임

강봉수 (윤리교육과)교수



수가 지난 달 27일 열린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정기총회에서 신임원장에 선출됐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고 김현돈 교수를 기리기 위해 김현돈 학술상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61기 수습기자 모집

1.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모집대상 : 2013학년도 학부 신입생 및 2학년 재학생
- 접수기간 : 3월 31일(일)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제주대신문 입사지원서(첨파파일) 출력 후 작성 편집국에 제출(대학원동 3층, 취업전략본부 건물)

2. 기타 제출 서류 :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자신의 성격, 입사지원 동기 등 기술) 1부 제출

3. 혜택
- 장학금 혜택(A급 우수학생기자장학금 또는 근로장학금 지급)
- 원고료(기사 성가에 따라), 취재 수수료(매월) 지급
- 현직 기자들로부터 취재교육(취재보도, 보도사진 등)
- 실제 언론사에서 활용하는 편집 시스템을 통한 편집교육
- 언론사 취업 적극 알선
-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근래에 일본 오사카, 도쿄, 오키나와 중국 베이징, 필리핀, 라오스, 미국, 몽골 등 취재하였음)

4. 면접 : 입사지원서 제출 후 개별 통보(추후 면접일 조정)
5.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6. 문의 : 제주대신문 편집국(064-754-2277-9, 010-7931-8228)

제주대신문

제33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59주년을 맞이하여, 제33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3년 6월 10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제출

5. 발표 : 제주대신문 896호(2013년 7월 3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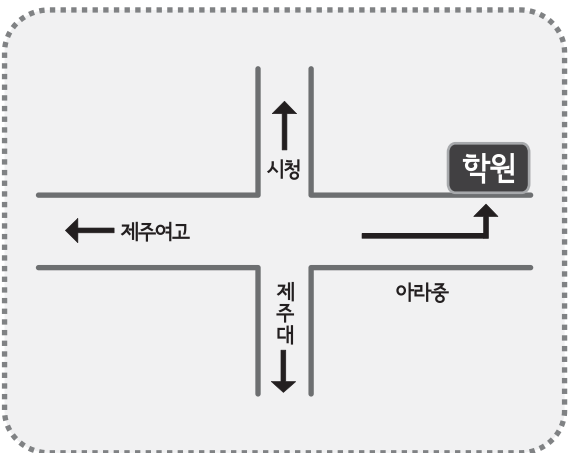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 ↔ 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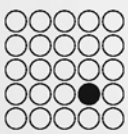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우리들에게 현재 필요한 경쟁력은 바로 '디자인' 입니다.



TRU_Design



>> 편집디자인 & 인쇄물 (홍보리플렛, 카달로그, 브로슈어, 포스터, 도서출판)

>> 광고물 (현수막제작, 각종 배너 및 POP제작)

>> 패키지물 (제출박스, 소풍백, 제품라벨)

>> 판촉물 (손수건, 타올, 상패, 트로피, 단체복)

>> 각종 학술세미나 관련 홍보물 (발표자료집, 초대장, 결과보고서 및 홍보부스 렌탈)

상담문의

Tel. 064. 756. 2358 Fax. 064. 753. 5238
e-mail. tru7994@hanmail.net

교수시론

2월에 보낸 바람을 3월에 맞는다



현미열
간호학과 교수

“
머리 굽어진 4학년들은 가고
무한 가능성을 가진 70명의
새내기들이 내겐 큰 선물로...
세상 향한 발걸음에 용기를
더하는 신입생 되길”

2월에 부는 바람은 쓸쓸하고, 3월에 부는 바람에는 기대가 묻어 있다. 2월에 부는 바람은 아직도 겨울이 가시지 않아 살을 에이고, 4년 동안 자라난 학생들이 떠나가는 자리에 불어댄다.

선생이란 자리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지 10년째. 어릴 적부터 선생님의 말씀을 늘 새겨듣고 그것을 지키고자 애써왔던 나 역시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무언가 영향을 줄수있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고 삼십대 후반에 드디어 교수가 되었다. 욕심도 있었다. 진실하고 열정적이었던 대학 은사님의 강의를 듣고 대학 3학년 때 이미 정신간호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정신간호학에 남다른 애정이 생기길 바라는 욕심이 있었다. 그러나 웬걸... 대부분은 커녕 교수생활 십년을 맞이하는 이 때 서너 명의 제자가 나와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이 정도면 선생으로서의 평점은 낙제인 셈인가?

처음 맞이하던 졸업식이 떠오른다. 요즘은 학생들의 학년, 학번이 뒤섞여 두셋이 같이 있으면 동기인지, 누가 선배인지 후배인지, 혹은 졸업하였는지조차 헛갈리지만, 처음 졸업식에서 떠나보낸 아이들만은 지금도 선명하다. 나름 마음을 다하여 키웠기에 학교를 졸업한 후 소식이 없는 그네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급기야는 섭섭한 마음이 들

어 이후 몇 년간은 사은회 때마다 ‘아, 이 아이들하고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에 헤어짐의 고통을 더욱 깊이했다.

나보다 먼저 교편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이 제자들의 전화를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맙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며 ‘뉘이 그리 고마울꼬,’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 이제는 남편의 마음이 심분 이해가 되며 나도 그렇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선생이라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 자신을 가꿈이라도 제자들이 기억해주는 것인가 보다.

내가 특별히 무엇을 가르쳐주었다는 기억을 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기억, 아마도 인연의 겹을 더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마음이 아닐까 싶다. 물론 제자들의 변도 있다. ‘잘할 수 있을 때 찾아뵈려 했어요, 힘든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등등.

학과장으로서 국가고시를 지리야만 하는 4학년 학생들과 유난히 얼굴 붉히며 지난 겨울을 보냈다. ‘성적 관리해라, 모의고사 때 지각하지 마라, OMR 카드 제대로 기입해라, 졸업은 할 거냐 말 거냐’ 등등 아침 8시면 시험장 앞에 버티고 서서 지각생들을 체크하고 협박을 일삼았다. 그 학생들이 막상 졸업을 한다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선생에게는 학생들이 마치 자식과도 같

다. 부모 말 거스르지 않고 속 한탄 배우는 일 없이 잘 자라주는 아이나, 단 하루도 맘 편하게 해주는 일 없는 말썽꾸러기인 아이나, 다 내 새끼여서 어디 갖다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공부 잘하고 매사에 믿음을 주는 학생이나 아직 갈 길 몰라 끝없는 방황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나에게는 다 똑 같은 내 학생이다. 언젠가는 원하는 일을 찾아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으로 내 학생들을 2월에 떠나보낸다.

3월에 부는 바람은 겨울바람 못지않게 매섭지만 대학새내기들의 풋풋함, 설렘, 순진 무구한 들을 담고 있어 4학년을 떠나보낸 마음을 보듬어준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에서 해방되고 싶은 건지, 앞으로 무슨 고민이 닥쳐올지도 모르는 채, 새터 무대에서 열심히 춤을 취대는 새내기들을 바라본다. 머리 굽어진 4학년들은 가고, 무한 가능성을 가진 70명의 새내기들이 내게 선물로 또 다시 주어졌구나 하는 감사함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3월이다.

누군가는 대학생활을 유목민의 그것과 닮았다고 하였다. 유목민처럼 여기 저기 강의실을 떠돌며, 여기 저기 사상의 산실들을 떠돌며, 여기 저기 새로운 인간 사이를 떠돌며 세상을 향한 발걸음에 무게를 더하고 지혜를 더하고 용기를 더하는 2013학번들을 기대한다.

들하르방



김동현
여론사회부장

우리 대학의 몇몇 학과의 전공 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강의를 따라갈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공계열 학과는 이 현상이 더욱 심하다.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거의 모른다가나 전공과 관련한 기본 내용을 모르고 있어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한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성적이 낮은 학과에 지원하기 때문이다. 해당 학과에 대해 전혀 아는 지식이 없는데 대학 입학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 교차지원(문과계열 학과에서 이과계열 대학 지원 혹은 이과계열 고등학교에서 문과계열 학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문과 학생들이 경쟁률이 낮은 이공계 학과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이공계 학생 기초학력 부족 심각하다

이러다 보니 이공계 학과의 전공 강의에 필요한 수교, 과학 과목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학생이 많다. 공학수학은커녕 고등학교 수학도 몰라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처음부터 전과를 생각하거나 편입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다. 또 중도에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전과지원 현황도 이 상황을 뒷받침한다. 인문, 사회과학, 경상대학은 독일, 사학, 철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과가 전과 범위를 초과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해양산업경찰, 전산통계, 의류, 컴퓨터공학, 전기공학과의 건축학전공 등을 제외하고는 이공계열 학과에 대부분 0~1명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 단순히 학과 수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전과를 학생도 있지만 문과 고등학생들이 이공계 학과에 지원한 후 다시 인문사회계열로 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교수들은 성적이 되지 않는 학생을 포기하고 이해하는 학생들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이 없는 학생을 데리고 심화전공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지

치기 때문이다. 절반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절반은 수업을 듣지 않는다. 공과대학의 한 교수는 “강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난이도를 낮추면 현재 수업을 이해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입학관리과는 지방에 위치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학진학률이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초학문 계열 강의 강화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대학위상의 향상을 통해 우수신입생을 유치하고 최초 합격자의 입학률을 증가하면 점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예비대학 기간 등을 활용해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한해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나 기초 학력과 관련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기초교육원은 지난해 2월 수학과와 수학교육과의 교

수들에게 의뢰해 ‘제주대학교 수학 기초학력 진단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를 참조해 좀 더 적극적인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사실 학교의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다. 대학진학률이 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다른 국가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2018년에는 대학 정원 이수험성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신입생 충원률을 지표에 넣고 있다. 물론 신입생 충원률은 대부분의 대학이 100%가 넘는 상황 속에서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역효과로 대학 공부가 불가능한 학생을 입학시키는데도 한 몫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을 무조건 가야 하는 풍토를 바꾸고 진정한 학문을 배우는 장으로 바꾸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지방대 육성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독자기고

제대인 자부심 갖고 꿈 이루자



강원준
생명공학부 1

해서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갑니다. 아침부터 정문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려서 떨었습니다. ‘드디어 화려한 대학생생활이 시작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1교시 수업 시작시간이 지나서 뛰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 풍경이 주위에 꼭 펼쳐지니 뛰기가 싫더라고요. 힘도 들고요. 점심에는 친구들이랑 학생회관 식당에서 특식도 먹어봤습니다. 혼자 캠퍼스를 누리다 보니 안면이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고 대학 구석구석에 위치한 건물들을 돌아다녀 볼 수도 있었습니다. 대학이 워낙 넓은데다가 잔디밭도 있고 자연하고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도서관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꼭 잡도 청해봤습니다. 처음이라서 어색한 부분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떨

기도 했지만 아주 흥미롭고 멋진 제주대학교에서의 첫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은 서울권 대학을 다니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주대를 와보니 서울권 대학보다 편찮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김인중 교수님께서 제주대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서울권 대학에 들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열심히 배워보려 합니다.

제주대학교를 다니는 학우들 그리고 선배님들. 제주대학교를 다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 주며 대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제 꿈을 위해서 제주대를 입학하였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열심히 대학생활도 하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도 할 것입니다. 제 꿈을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목표로 잡고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날 누구보다 기쁘고 당당히 졸업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주대학교 친구들 그리고 선배님들. 모두 다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며 언제나 힘차게 그 꿈을 위해 파이팅 합시다. 제주대학교 파이팅!

대학생활의 진정한 의미 살려야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한껏 부푼 마음으로 캠퍼스를 누비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 대학교의 가로수 길을 걷는 설레는 기분과, 새로운 시작과 함께 신선한 열정을 가진 채 이곳에 들어온다. 캠퍼스 곳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열띤 동아리 홍보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수다가 한창이다. 이것이 우리가 거닐고 있는 대학의 모습이다.

대학이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고 가는 곳일까. 나의 취미와 특기, 꿈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몇 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이끌리는 대로 대학교의 길을 걷는다. 학과 안에서 열심을 불태우기도 하고, 학점과 스펙에 올인 해서 보내기도 하고, 자기와 맞는 동아리 사람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기도, 또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만, 정작 성인이 되고 대학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누군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교는 흔히 말하는 ‘스펙 쌓기’의 전초기지가 아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사회시스템에 살 수 밖에 없을지라도 생각은 그곳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이고, 취미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을 때 약 80%의 학생들은 몇 초간의 공백 기간이 생기거나, 아예 대답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의 심각성을 잡아내지 못한 채 잘못된 일반화 안에서 살아간다. 대학교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 생활이

기도 하지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엄연한 개인생활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지금 대학생활이 단 4-5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인생의 모든 길을 좌우할 수 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틈을 들이지 말고 잡아내야 한다. 교수님이나 선배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연이나 낙점에 실망했을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술친구가 아닌, 앞으로의 길을 조망해주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새 학기가 되고 새 친구, 새로운 학교 모든 것이 처음이라 한창 설레는 이때, 절반가람은 유혹이려는 새로운 도전을 한다.

CF에서 많이 보는 술자리 후 다음날 처진 눈과 얼마 후 날라 온 성격표는 그 자체로 암울이고 절망이다. 그런 장면을 보고 우리는 호기심을 갖는 것이 아닌 경각심을 얻어야 한다. 모두가 열심히 할 때 나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쉬고 있을 때이지만 나는 열심히 하려하는 틈새시장은 노려야 한다.

흔히들 제주도는 좁고 다들 넓은 땅으로 나가야 성공이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 제주대학교에 왔다고 해서 나의 꿈이 작아지거나 틀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다. 꿈을 좁고 틀에 갇히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편협한 생각일 뿐이다. 꿈은 점점 작아지지만 그 꿈의 주인이 주저 않아버린다면 그 꿈은 주인 없이 떠도는 방랑자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제주대학교라는 곳에 자부심을 갖고 곳곳에 아우성치고 있는 꿈과 비전의 소리를 잡아낸다면 우리는 성공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강다희(영어영문학과 2)

특별기고 - 카사 델 아구아의 철거를 보며

문화가치 인식 수준 안타까워



김태일
건축학부 교수

제주사회의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던 카사 델 아구아가 3월 6일 철거 되기 시작하였다. 한국건축계와 제주 문화계의 보전노력에도 불구하고 철거되는 카사 델 아구아를 보며 우리사회가 직면해 있는 문화수준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깝기만 하다.

국내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멕시코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1931~2011)는 2011년 12월 타계하기 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였는데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 건축상 심사위원을 지낸 현대건축계의 거장으로 1999년 미국건축가협회 골드메달, 2005년 전미건축가협회 골드메달을 수상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카미노 레알 호텔(멕시코), 세라틴 아반도이 바라 호텔(스페인 빌바오) 등 세계 여러 국가에 60여개의 작품이 있다. 세계적인 건축계의 거장이지만 의외로 작품이 적은 것은 그 만큼 레고레타는 의미있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지역과 땅을 추구하며 그의 건축적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모든 건축가가 그러하듯 땅과 건축물의 조화에 더욱 열정적인 작업을 기울였던 성숙기의 레고레타가 제주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우리 건축계로서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작품명은 ‘카사 델 아구아(Casa del Agua)’이며 스페인어로 ‘물의 집’을 의미한다. 레고레타가 아름다운 땅,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땅, 제주에 남긴 ‘카사 델 아구아(Casa del Agua)’는 성숙기에 접어든 그의 건축세계를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제주의 붉은 돌과 송이의 색을 닮은 ‘카사 델 아구아’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여유로움과 즐거움,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이 더해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다양한 풍경을 만들어 내는 작품이다. 건축가의 의도대로 그림의 풍요로움이 담겨진 제주의 풍경에 취하고 아름다운 공간에 취하면서 그의 건축 작품 역시 함께 변화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사 델 아구아’는 철거되었다. 법논리에 앞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얻기 위한 과정이 생략된 채 간단히 철거해 버리는 건축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문화가치의 수준이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는 같은 과정을 겪은 적이 있지 않은가! 1995년에 철거된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김종욱의 대표작 제주대학교 구공관의 철거를 통해 얻었던 교훈은 무엇이었고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여전히 얻지 못한 채 반복된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지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할 때마다.

건축은 간단히 축조하고 간단히 철거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삶의 공간을 축조하기 위해 기후와 풍토, 땅의 조건, 사용자의 다양한 가치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건축적 형태와 공간으로 구축해 나가는 작업의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문화의 장르로 평가하는 것이다. ‘카사 델 아구아’를 둘러싸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문화계 전반에서 철거를 반대하고 보전을 통해 활용을 주장했던 이유도 카사 델 아구아의 건축적 가치와 주변환경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런 철거과정을 보면서 문화환경으로서의 건축을 구축해 나가는 행정의 리더십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이다. 필자는 비록 카사델 아구아는 소실되었지만 문화로서의 건축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6일 철거된 카사 델 아구아는 ‘물의 집’을 의미하며, 리카르도 레고레타가 제주에 유일하게 지은 건물이었다.

기자గ 물었습니다

어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나요?

CROW 동아리에 들어가 멋진 춤을 추고 싶어요

곧 동아리에 들어갈 생각이다. 평소 춤에 관심이 있어 CROW 동아리에 가입해 다양한 사람들과 추고 춤을 배울 것이다. 제일 좋아하는 춤은 비보이 춤이다. 동경하는 그룹은 박재범이 속해 있는 AOM이라는 그룹이다. 나도 그들처럼 멋진 춤을 추고 싶다. 김상준(정치외교학과 1)

동아리 활동보다 외국어 공부에 관심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또 또래에 비해 학교를 늦게 들어 왔다. 같이 활동하기도 힘들 것 같다. 학교 외부에서 따로 하는 일이 있어 동아리보다는 외국어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 또 타지에서 와서 제주대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승연(독일학과 1)

학과 활동과 자격증 공부에 우선

동아리보다 학과 생활에 더 충실하고 싶다. 학과 활동에 열심히 하면서 좋은 동아리가 있다면 가입하고 싶다. 만약 동아리에 들어간다면 운동과 관련된 동아리일 것 같다. 아직은 학과에 필요한 공부나 자격증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송유석(에너지공학과 1)

활동하기 편한 동아리 가입하고 싶어

어떤 동아리에 가입할지 결정 못했다. 평소 방송 쪽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제주대 교육방송국은 잘 알지 못한다. 또 음악에도 관심이 있다. 내가 가입하는 동아리는 활동하기 편했으면 좋겠다. 송준영(언론홍보학과 1)

정리=김동현 기자

»아라해외봉사단 라오스 봉사활동 취재기 (상)

“봉사는 도움 주기 아닌 마음 나누기”

봉사단 55명 학사이 마을에서 구슬땀 의료봉사에다 기술·교육·노력봉사도 겸해

“짜바이다(라오스어 안녕하세요)”
라오스 해외봉사활동에 나선 단원들과 생
면부지의 학사이 마을 주민들이 손을 가지
런히 모으고 인사를 한다. 마을 주민들은 봉
사단 조끼를 입은 이들에게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연신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멈춰버린 나라, 순수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라오스. 제주대 아라해외봉사단
(단장 양영철) 55명이 지난 1월 19일부터 8
박9일간 라오스 학사이 마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교수와 학생 등 55명으로 구
성된 아라 해외봉사단은 현지에서 의료·기
술·교육·노력 봉사와 지역주민과의 문화교
류 행사 활동을 했다. 라오스 학사이 마을은
필리핀 카비테주, 일로일로에 이어 제주대
와 인연을 맺은 3번째 마을이 됐다.

현지 새마을회 관계자는 대학 차원에서
이 같은 규모의 봉사활동을 벌이는 것은 흔
치 않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제주대의 이번
봉사활동에 새마을중앙회, 김관덕기념사업
회, 재일제주인센터 등 많은 단체가 해외봉
사활동에 도움을 손길을 내밀기도 했다.
“짜오 뵘 냐?”(어디가 아프세요)”
허정식(의학과) 교수가 묻는다. 이곳 마
울의 대다수 환자들은 아무리 아파도 의사
를 보자 웃음을 보인다. 이 마을에서 의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운이기 때문이다. 학사
이 마을에 의료팀을 꾸린 봉사단이 찾아 의
료봉사를 온 것은 처음이다. 이곳 마을주민
들은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
문이다. 홍성오(새마을중앙회 집행관)씨는
“학사이 마을의 의료사정 매우 열악하다. 보
건소는 제대로된 약품 하나 없고 마을에 병
원이 있지만 시설이 낡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곳 주민들은 치료
를 받기위해 비엔티엔 시내로 나가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1시간
이상 걸리는 시내로 나가는 것도 힘든 상황
이다. 그러다보니 치료시기를 놓치고 병을
키우는 주민들이 많다.
8박 9일 동안 의료팀은 2500여명의 주민
들을 진료했다. 현지 주민들은 영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현지 라오스의 대학원생이
통역을 해 진료를 했다. 그 외에도 영양이 부
실한 주민들의 상황을 감안해 철분제, 비타
민제 등을 나눠주기도 했다.
특히 주민들 중에는 주로 몸에 담석이 많
은 경우가 많다. 이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물
에 석회석이 녹아 있어 아픈 것이다. 농
사 등의 고된 생활로 관절염과 복통을 호소
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주민들에게 사랑의 인술을 펼친다는 보람
도 있었지만 의료팀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
환자도 있었다. 한 할머니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진을 찾았다. 이 할머니가 시
력을 잃기 시작한 것은 10여년 전. 의사가
마을을 찾았다는 반가움도 잠시였다. 너무
나 많은 시간동안 치료를 하지 못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병을 가진
어린이도 있었다. 심장에서 혈액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
는 판막에 이상이 생겨 고통을 호소하다 의
료진을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의료진도 치료할 도리가 없었다. 수술도구
도 없었을 뿐더러 복잡한 수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환자는 나중에 제주대학교병
원에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하기로 했다.
이중흥(의학과 3)씨는 “건강이 좋지 않
은 주민들이 많아 바쁘고 정신이 없었지만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었다”면
서 “순수한 라오스 사람들을 보고 치료를 하



의학과 학생들이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불소도포를 하고 있다.

면서 많이 힘을 얻었다”고 덧붙혔다.

한편 현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의사들도 의료 봉사활동이 진행된 학사이
마을 초등학교를 찾아 함께 주민들을 진료
하기도 했다.
노력봉사팀은 인근 학교 초등학교 외벽
페인트칠 하는 등, 주민들과 삶을 맞닿으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이
들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임무는 학사이 마
을 인근에 위치한 시큰무앙 초등학교의 내
부 벽을 페인트칠 하는 것. 초등학교라고는
하지만 외벽이 낡아 건물 안에서 하늘이 보
일 정도로 열악한 환경인 곳이다. 건물의 내
부 역시 칙칙한 시멘트로 방치돼 있었다. 이
들은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페인트칠
에 합세해 이틀 동안 교실 3개가 딸린 건물
1동을 화사하게 바꾸었다.
이틀간의 페인트 봉사활동을 마친 이들은
마을 주민들을 도와 도로포장에 나섰다. 다
른 마을로 이동하는 것이기에 더욱 부담감이 크
다. 하지만 학사마을의 도로가 들어섰지만 마을
동네의 도로는 아직도 지나갈 때마다 먼지
가 폴폴 날리는 흙길이었다. 라오스 사람들



노력봉사단원들이 도로포장을 하고 있다.

도 일을 멈춘다는 오후 12~2시에도 시멘트
도로포장은 계속됐다. 30도를 훨씬 웃도는
날씨에도 마을에는 단원들의 ‘오차!’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봉사단원들의 수많
은 땀의 결실로 1km에 약간 못 미치는 마을
도로의 포장을 마쳤다.
김학용(컴퓨터교육과 4)씨는 “라오스에
제주대와 나라를 대표해 왔다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며 “순수한 라오스 학사이
마을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
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봉사활동도
많이 했지만 단원들과 인간적으로 교감하고
많이 친밀해졌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라오스 학사이 마을은?

제주 출신 교민 진출… 새마을운동 전개



라오스 지도



라오스 학사이 마을

이번에 아라해외봉사단이 봉사활동
을 펼친 학사이 마을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 주에 툴라콤 지역에 위치해 있
다. 이곳은 시내 중심부로부터 북쪽으로
60km 떨어진 마을이다. 지난 두번의 필
리핀 봉사활동지역보다 오지에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마을은 대한민국과 인연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학사이 마을에 우리나라
새마을중앙회에서 오래 전부터 진출해
원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귀포 출신의 홍성오(새마을회 집행
관)씨를 비롯해 제주출신의 교민들이
현지 초등학교 시설을 고쳐주고 새마을
운동 시범마을로 지정하는 등 많은 교류
가 오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라오스의 공식 국가명은 라오 인민민
주주의공화국으로 사회주의 국가이다.
인구는 2010년 현재 약 683만명으로 수
도인 비엔티엔과 주변지역 그리고 남부
태국과 베트남 사이의 서쪽 사반나켓 지
역에 평야 지대의 대다수가 분포하고 있
다. 이들 주요 인구 분포 도시 지역은 메
콩강을 건너는 여러 개의 다리로 태국과
맞닿아 있다.
또 라오스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해
외원조 대상국가이다. 특히 학사이 마을
은 농촌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
동을 해외에서 전개하는 전파지역으로
제주 새마을회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새

마을단체들이 활동을 전개한 곳이었다.
홍성오 집행관은 “학사이 마을은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의 혜택을
본 곳으로 주민들이 도로 포장, 학교 시
설 개선 등을 통해 외부의 지원과 주민
협력으로 지역 발전의 효과를 경험한 지
역”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라해외봉
사단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한편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 중앙
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국토의 80%가 산
악지대인 전통적인 농업국가이다. 경작
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의 3%에 불과한
데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 임업, 수산업
에 종사하고 있다. 그래도 학사이 마을
은 라오스에서 부촌에 해당한다. 새마을
회에서 진출해 이곳의 주요 농산물인 옥
수수, 수박 등의 생산을 증대시켜 소득
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라 해외봉사단은 비엔티엔 지방의
학사이 마을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했
는데, 이곳은 수도 비엔티엔에서 북쪽으
로 펼쳐진 넓은 저지대 농업지역이다.
남능(Nam Ngum)강이 굽이쳐 흐르며
충적지진 토양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학사이 마을은 라오스내에서 상대적으로
농업활동이 가능한 저지대 평지로는
농사와 밭작물 재배가 일부 기간 동안
이뤄지고 있다. 김명지 기자

»학생자치기구 출범식

“잘못된 관행 없애 깨끗한 학생회 건설”



장·유병선(토목공학과 4, 왼쪽),
부·홍성훈(영어교육과 3)

인터뷰 ‘좋은일만’ 총학생회

▶출범 소감은.
“떨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기대
된다. 방학기간 동안 우리가 내걸었던 공약
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다. 일단
아라 학우들의 투표로 인해 당선된 것인 만
큼 학우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임기동
안 초심을 잃지 않겠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먼저 등록금 인하이다. 등록금 인하는 1
월 말에 열린 1,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처분별 인하, 4학년 1.7% 등록금 인하를 실
현했다. 그 다음으로는 취업률 향상이다. 취
업률 향상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박람회 개최하겠다. 또 취업캠프, 기
업 초청 강연회, 도내기업 탐방 기회, 해외
인턴십 모집인원, 교류 수학생 모집인원 확
대 등을 이행하겠다. 또 제주대 위상을 올리
기 위해 독도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총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
“공약의 이행은 방학부터 많이 준비했다.
현재 4학년 등록금을 1.7% 인하시켰다. 또
대학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평
의회에 학생대표 참여를 관철시켰다. 해외
인턴십 인원 및 금액 확대, 순환버스 및 야
간버스 확대, 산천단 인도정비 등이 시행됐
다. 우리가 내놓았던 정책을 100%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중앙자치기구 및 단과대학 학생회와의
관계는.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을 진
행하거나 주장할 안건이 있으면 독단적으
로 결정하지 않고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 이는 아주 사소
한 안건이라도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회의에 들어가기
전 자치기구 및 단과대 학생회의 의견을 반
영했다. 또 앞서 말한 평의회 참여도 총학생
회 단독 요청이 아니라 중앙운영위원회 회

의를 통해 전원 동의를 거친 후 중앙운영위
원회 이름으로 요청했다.”
▶학생회비에 대한 생각은.
“현재 학생회비는 학기당 6000원으로 자
율납부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학생회비로 중앙자치기구와 단과대학의 학
생회비 예산이 편성된다. 자율납부이기 때
문에 안 내는 학생도 많고, 선배들 중에서
‘내지 말라’고 조언해주는 경우도 더러
있다. 솔직히 조금 속상하기도 한다. 학생회
비를 내는 것은 저희 학생회에 보여주는 관
심이라고 생각한다. 학생회비 또한 더 나은
학교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조금 더
학생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회가 부
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건의했으면 좋
겠다. 학생회도 학생회비가 어떻게 쓰이는
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총운영위 때 총학
생회 예·결산안을 공개해 올바르고 투명하
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최근 몇몇 대학에서 총학생회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총학생회장이나 리베이트
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뉴스를 봤다. 학생 대
표로서 이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는 것은 말
도 안 되는 일이다. 이 사건을 일으킨 학생
대표는 근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처 방안은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총
학생회의 도덕적인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이지, 그 대표자가 개인적으
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는 생
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절대 이러한 문제
가 없는 총학생회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에게 한마디.
“우리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총학
생회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의 생
각만으로 사건을 접근하지 않고 많은 학우
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노력하겠다. 총학생
회의 역할을 위해서는 많은 학우 여러분들
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중앙자치기구,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에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김동현 기자

“여학우 복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



장·박지혜(체육학부 3, 왼쪽),
부·고수연(한국화전공 2)

인터뷰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출범소감.
“지난해 선거운동 시절, ‘청춘걸고’를 응
원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구성원들과
오전 여학우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한
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 있다.
이번 출범식은 ‘청춘걸고’ 총여학생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에 더욱 부담감이 크
다. 하지만 학우들과의 만남을 생각하니 설
렌다.”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먼저 캠퍼스 내에 화장실을 개선하겠다.
화장실은 여학우들에게 비밀스런 공간이다.
하지만 현재 창문에 붙여진 시트지가 제 역
할을 하지 않으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투명 시트
지를 모든 화장실마다 부착하겠다.
또한 화장실에 화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
겠다. 여학우들은 주로 화장실의 세면대
에서 화장을 고치는데 소지품을 둘 장소가 없
어 애를 먹는다. 또 세면대를 이용하는 학우
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로 간지거울과
선반을 이용한 공간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
화 할 것이다.
화장실 내부에 화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
겠다는 공약은 오는 4월에 시행할 예정이
다. 학교 측의 허락은 이미 받은 상태이며
물품 구매를 통한 설치만 남아 있는 상태이
다.
더불어 총학생회와 함께 독도 탐방을 기
획하고 있다. 독도는 낯은 낯씨와 파도로 쉽
게 가기 어렵다. 학생들과 함께 독도 탐방을
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고 싶다.”
▶학생자치기구 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 아
직까지 홈페이지 활용빈도가 적은 것 같다.
이에 관련해 총여학생회의 생각은.
“출범식 홍보동영상을 ‘청춘걸고’ 페이
스북 페이지에 올렸는데 인기가 많아서 놀
랐다. 또 학생자치기구 홈페이지는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보는 추세여서 모바일 홈페이지가 필요하
다. 현재 페이스북 ‘청춘걸고’ 홈페이지는
자치기구 홈페이지에 비해 방문빈도가 수
 높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학우들에게 다가가
겠다.”
▶여성의 날과 여학우의 날을 합쳐 청춘걸
스데이를 만들었는데, 이 사업의 추진방향
은.
“‘청춘걸고’ 총여학생회의 가장 큰 목표
는 여자와 남자의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 것
이다. 기존에 존재했던 프로그램과 더불어
남녀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다양
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우선, 출범식
에 ‘갈라임VS김주원 시크릿 도전 99초’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의 역할을 바꾸는 게임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다.”
▶총여학생회를 이끌기 위해 구성하거나
준비한 일들은.
“우선 3층에 위치했던 수면실을 2층 여학
우 휴게실로 이전시키고 총여학생회와 수
면실을 합쳤다. 기존 수면실을 총여학생회
실로 사용해 새로운 총여학생회실을 개방
하기 위해 환경미화에 힘을 썼다.
또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지난 9일
에는 시청 광장에서 여성의 날 행사를 진행
했다.”
▶앞으로의 포부.
“항상 겸손해야 하는 대표라는 자리에서
당당하고 소신있는 총여학생회가 되겠다.
‘청춘걸고’라는 슬로건에 맞게 2013년, 청
춘을 걸고 달릴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학우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이번 출범식은 ‘청춘걸고’의 시작을 알
리는 첫 행사인 만큼 밤을 꼬박 새며 준비했
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때로는 충고가
큰 힘이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해 최고의 총
여학생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많은 관
심과 독려 부탁드립니다.” 김하은 기자

“동아리 활성화 위한 지원 활동에 역점”



장·정영훈(생활환경복지학부 2, 왼쪽),
부·김범훈(기계공학전공 2)

인터뷰 ‘하나+하나’ 동아리연합회

▶출범 소감은.
“‘하나하나’ 동아리연합회를 믿고 뽑아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해
달라는 의미로 알고 성원에 보답하겠다. 끝
까지 열심히 해 구성원에게 최고의 동아리
연합회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첫째, 신입생 홍보 강화이다. 1, 2층 미
야외 홍보데스크와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도와주고 있다. 또 홍보 기간 중 학생회관
에서 공연을 진행해 학생들의 이목을 끌고 있
다. 이 때 공연을 하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리들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연 일정 등도 학생회관에 붙여
놓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야
외 홍보데스크가 바람 때문에 철수한 점이
아쉽다.
둘째, 동아리지원금 확대이다. 동아리연
합회 차원에서 지원금이 적었다. 학생복지
과에서 동아리에 25만원씩을 지원해주지만
이는 공연을 한 번 진행하기도 벅찬 금액이
다. 올해는 15만원씩 일괄적으로 줬지만 실
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체계도 만들 생각
이다.
셋째, 체계 확립이다. 이제까지는 회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동아리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회
칙에 따라 동아리연합회를 운영할 것이다.
회칙이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면 수정도 할
것이다. 동아리연합회가 분과 단위에 맡혀
서 각 동아리에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 것
이다. 이를 위해 분과장의 힘을 키울 생각이
다.”
▶총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
“절반 정도의 공약이 진행이 됐다. 현수
막 설치, 동아리 지원금 확대, 홍보 캘린더
제작 등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신입생 연합
MT는 4월 중, 2주 1회 단체 영화 관람 시행

은 3월 말쯤에 시행될 것이다. 교류 연수 추
진은 교류할 대학, 일정 등은 구성됐다. 방
학 중에 시행할 것이다.”
▶동아리방 재배치에 대한 불만은 없다.
“동아리방 재배치는 ‘Why not?’ 전 동
아리연합회 소관이라 불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른다. 다만 개인적으로 불
만이 있다. 6개의 동아리만 재배치가 되고
36개의 동아리는 같은 방에 남았다. 동아리
방 재배치가 접수가 높은 순으로 원하는 방
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일정 점수만 넘기면 같
은 방에 있도록 했다. 이는 늦게와 좋은 자
리를 받지 못한 동아리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
제를 줄이기 위해 회칙 개정안을 통해 바꾸
고 있다.”
▶어떤 동아리연합회를 만들 것인가.
“동아리인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동아리연합회가 되겠다. 또 동아리간의 교
류 활성화, MT 등을 통해 화목한 동아리 활
동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동아리들끼리 단
합이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에게 한마디.
“우리는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동아리들도 주제적으로 행사, 공연 등을 진
행했으면 좋겠다. 신입생들에게는 꼭 동아
리를 활동하라고 말해주는 게 어렵다. 다만
대학 4년 혹은 인생에서 한 번의 기회이므
로 누려봤으면 좋겠다.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또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학과
활동, 학점 등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끝으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
다.” 김동현 기자

총대의원회의의 경우 인터뷰에 응하
지 않아서 기사를 실지 못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부탁드립니다.